

제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율 전국 최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7월 사고 11건·25억
사고율 4.6%로 전국 평균 0.9% 웃돌면서 가장 높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149건… 30~40대 59%

제주지역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가운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사고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는 올해 7월 제주에서 11건, 24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7월 누적 보증사고는 131건, 252억9400만원이다. 앞서 2023년 연간 보증사고가 111건, 196억42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지역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사고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율은 해당 월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보증상품 총액 가운데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액의 비율이다. 7월 제주지역 사고율은 4.6%로 전국 평균 0.9%보다 5배 이상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5월과 6월에도 각각 5.4%, 5.0%로 전국 평균인 1.1%, 1.0%를 웃돌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금 관련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제주도는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제주도는 2023년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납부한 보증료의 90%(청년층은 10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층 5000만원 이하, 그 외 연령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보증료 지원은 지난해 512가구에 1억2268만원, 올해는 7월까지 288가구에 7395만원이 이뤄졌다. 지원액은 정부와 제주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매달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최종 결정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수는 149건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 13명, 30대 50명, 40대 38명, 50대 26명, 60대 이상 22명 등으로, 30~40대가 59.0%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37건, 연립주택 15건, 다세대 14건, 아파트 10건, 도시형생활주택 2건, 숙박시설 등 기타 11건 순이었다.



추석 앞두고 배 수확 분주한 농가. 절기상 백로인 7월 인천 남동구 수산동의 한 과수농가에서 농부들이 배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산 극조생 감귤 대상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행

제주시는 2026년산 극조생감귤 출하 시기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수확 당도검사를 통해 상품 외 감귤 유통을 차단하고,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검사 대상은 10월 1일 이전 극조생감귤을 수확·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이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3일까지이며, 수확 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제주시 감귤유통과 ☎728-3335로 신청하면 된다.

검사는 공무원과 감귤유통 지도단속원이 신청 과원을 방문해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로 실시한다. 검사샘플 10과 가운데 당도 8.5브릭스 이상이 80% 이상일 경우 품질검사를 통과하며, 확인 결과는 과원에서 즉시 통보된다.

제주 경매 물건 석 달 연속 900건 넘었다

6~8월 연속 900건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미분양주택 증가 맞물려 아파트 경매도 ‘부쩍’

제주지역 경매 물건이 석 달 연속 900건을 웃돌며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미분양주택 증가와 맞물려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도 눈에 띄게 늘었다.

7일 경·공매 기업 지지옥션의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은 945건이다. 지난 6월(902건), 7월(927건)에 이어 3개월 연속 900건을 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10월(1014건) 이후 약 18년 만에 월별 기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 침체는 주거시설부터 숙박시설·오피스텔·상가 등을 포함하는 업무·상업시설, 토지까지 용도를 가리지 않았다.

8월 경매 진행 물건 가운데 낙찰된 물건은 160건으로, 낙찰률은 16.9%. 낙찰가율(감평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47.0%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2.1명이다. 낙찰률과 낙찰가율, 평균 응찰자 수 모두 전국 평균(각각 21.8%, 56.7%, 3.0명)을 밑돌았다.

주거시설은 224건의 경매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63건이 낙찰됐다(902건), 7월(927건)에 이어 3개월 연속 900건을 넘었는데, 글로벌 경매는 33건(제주시 30건, 서귀포시 3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낙찰돼 낙찰률 24.2%, 낙찰가율은 82.5%를 기록했다. 경매 진행 건수는 2024년 1월(52건) 이후 가장 많았는데, 제주시 도련동 소재 아파트 14건이

한꺼번에 경매에 나온 영향이 컸다. 이 밖에도 노형동 3건, 외도동 3건, 조천읍 2건, 연동 1건 등 읍·면·동 지역에서 고루 경매가 진행됐다.

업무·상업시설은 경매가 진행된 256건 중 30건(11.7%)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45.5%다. 업무·상업시설 가운데 숙박시설 경매 물건은 78건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 분양형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의 경매 물건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토지는 459건의 경매 물건 중 64건이 낙찰돼 낙찰률 13.9%, 낙찰가율 41.4%를 기록했다.

한편 8월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물건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문화집회시설로, 감평가의 40.2%인 95억 원에 낙찰됐다. 응찰자 수가 가장 많았던 물건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 아파트로, 12명이 응찰해 감평가의 86.0%인 7억1718만6000원에 낙찰됐다.

추석 차례상 비용 소폭 오를 듯… 전통시장 30만원

한국물가정보 조사 결과
폭염 영향 축·수산물 올라

다가오는 추석 명절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39만7700원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각각 1.2%(3500원), 1.6%(6350원) 오른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비용에 큰 변동 폭은 없었지만,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이변의 영향을 받은 일부 채소류와 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며 전체 비용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과일류와 견과류 등 상당수

품목은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했고, 채소류 가운데 배추와 나물류인 시금치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일부 상쇄했다.

다만 추석까지 아직 3주가량 남아 있어 현재 조사된 가격 흐름이 명절 직전까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국물가정보는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랐지만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농산물의 생육과 출하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햇상품 출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성수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품목별 가격 추이를 살피는 것이 장보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주도정소식

2027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9월 2일 ~ 9월 11일,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투표방법: 제주도 누리집 → 소통/참여 → 도민참여/제안 → 주민참여예산 → 사업공모 → 사업투표

제주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성장할 인재 23명을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026. 9. 14.(월) 09:00 ~ 9.22.(화) 18:00

○ 채용규모: 총 23명(공개경쟁 7명, 경력경쟁 16명)

○ 공채과정(일반 8급): 행정 4명, 기계 1명, 전기 1명, 환경(수질) 1명 등 7명

○ 경력경쟁(경력 2급 5급 6급): 행정·전산·기계·전기·환경(수질) 등 17명

○ 응시자격(공통)

○ 연령: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요건 충족자

○ 단: 경력경쟁 2급 5급 6급은 거주요건 제한 없음

○ 전형절차: 원서접수 → 필기시험(일반 8급에 한함) → 인성검사·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12월 초)

○ 접수방법: 인터넷 채용사이트(jeju.career.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방문접수 불가)

○ 임용예정: 2027년 1월 또는 3월(구분모집별 상이, 추후 공시)

○ 자세한 채용분야 자격요건·전형방법은 채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도 제주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 064-710-2283, 2285

2026년 하반기 도민소스쿨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2026. 9. 1.(화) ~ 10. 29.(목)

○ 교육장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제주시 서사로 43)

○ 교육내용: 생활 밀접한 법 이론 및 사례 등 법률 교육(8과목 29강좌)

○ (A반) 부동산거래 법률상식, 금전·상속 유언 법률상식, 신종 디지털범죄 예방 및 법률상식

○ (B반) 교통사고 관련 법률상식, 소비자 보호법, 대한민국을 바꾼 판례 이야기

○ (C반) 세법상식, 근로기준법 상식

○ 신청방법: 제주도민대학 누리집(https://www.jejudomin.kr/)에서 신청

○ 신청기간: (A반) 8.10.~8.28. (B반) 8.10.~9.14. (C반) 8.10.~10.7.

○ 문 의 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부 ☎064-726-9851)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3.0’ 개편 출시

▶ 지원대상: 제주도민* 청년 근로자

- 만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 주간 농업농촌소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작은 실천 ‘물·그늘·휴식’

키워

○ 과실성숙기로 본격적인 당 축적 및 건물함량 증가

- 수분관리: 7~10일 간격으로 20~30톤/10a 관수

○ 환상박파: 만개 후 100~120일 경 5~10mm 두께로 실시

○ 병해충 관리: 봉나무까지벌레, 과실면부병 등 예방 및 방제 실시 당근

○ 숙음작업:

(1차) 파종 후 30~40일경(보일 2~3매) 포기사이 5~6cm 정도

(2차) 파종 후 40~50일 경(보일 4~5매) 포기사이 9~12cm정도

○ 웃거름 시비(10a 기준):

(1차) 파종 후 20일 경 요소 9kg, 염화칼리 6kg

(2차) 파종 후 50일 경 요소 13kg, 염화칼리 3kg

양재류

○ 묘순초: 보일 4~5매일 때 정식 3~4일 전 비닐기운에 노출 및 관수량 감소

○ 정식간격: (양배추) 조생종 55~60×40cm, 중만생종 60×55~65cm (브로콜리) 60×25~40cm

○ 정식작업 및 정식 이후 뿌리 활착을 위한 관수

월동무

○ 밀거름 시비(10a 기준)

- 파종 2일 전 요소 13kg, 용성인비 60kg, 염화加里 9kg 살포 후 이랑만들기

○ 파종: (재식거리) 50~60×19~25cm

* 조기수확용 품종은 45~50×19~21cm

- 파종량: 8,000~9,000주/10a 목표로 파종구 당 1~2립 파종

마늘

○ 210~260kg/10a 총구 준비, 인편보리는 파종 직전에 하는 것이 유리

○ 종구소득: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방지를 위한 소득 실시

- 침지소독법: 물 20L에 약제 40g 혼합액에 1시간 담근 후 그늘에 건조 후 당일 파종

- 분의소독법: 종구 1kg에 약제 4g을 넣어 골고루 문힌 후 파종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廷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논

● 미니몬 ● 제라논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례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